

к с і

# 竹林七賢의 交遊時期와 交遊場所

김진영\*

## <목 차>

1. 머리말
2. 交遊時期
3. 交遊場所
4. 맺음말

## 1. 머리말

‘竹林七賢’이라는 사람들은 淸談을 즐겼던 은일자들로 이해된 적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교유관계나 사는 방법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그들 한사람 한사람이 은일자가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위 竹林淸談은 249년 司馬懿의 쿠데타 직전부터 10여 년 동안 山陽의 嵇康을 중심으로 행해진 것으로 생각되나, 魏·晉교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진 이 淸談에는 은일을 도모하기 보다 오히려 정치적 재난으로부터 保身하기 위하여 정계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竹林七賢- 竹의 林에서 遊하는 일곱 명의 賢者들 -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상식적으로

\* 인덕대학 중국어과 전임강사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현자는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현자라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禮敎를 비난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放蕩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 ‘賢이라고 불리우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魏·晉이라고 하는 시대가 다소 ‘진실하지 않은’ 시대였음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그 ‘진실하지 않은’ 시대의 모습은 魏·晉에 앞선 後漢末의 사회에서 일찍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魏·晉의 시대는 그 연장인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권력자들은 표면상으로는 도덕과 예교를 부르짖으면서 실상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고도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예를 들어 後漢 최후의 天子였던 獻帝를 옹립하여 華北에 정권을 수립하고 명목상으로는 漢의 승상과 魏王이라는 이름만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천하의 실권을 장악한 曹操(魏武帝) 같은 사람은 그 전형적인 인물의 한사람이지만은, 그후 漢→魏→晉으로 이어지는 정권추이의 과정에 있어서는 한층 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조의 뒤를 계승한 曹丕(文帝)는 후한의 헌제를 절박하게 만들어 마침내 그 位를 찬탈하여 魏를 건립하였으나(220년) 그것도 漢의 천자가 하늘이 명하는 바에 따라 有德한 魏王에게 자리를 넘겨준다는 소위 ‘禪讓’의 형식을 꾸며서 행해졌다.

그러나 그 魏도 조비 다음의 曹叡(明帝)가 사망한 후부터는(239년) 정치의 실권이 종실의 一人인 曹爽과 權臣인 司馬懿의 싸움이 시작되고, 곧 司馬懿의 쿠데타에 의하여 曹爽일파가 모두 살해된 후에는(249년) 완전히 司馬씨 일파의 專權時代가 되어 司馬懿의 아들인 司馬師, 司馬昭, 손자인 司馬炎이 계속 이어 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 기간 명목상으로 제왕으로 추대되었던 曹芳(齊王), 曹髦(高貴鄉公) 등 모두가 후에 불효의 죄명으로 폐위되든가 주살되었고, 曹奐(元帝, 후에 폐위되어 陳留王이 됨)은 마침내 司馬炎 즉 晉武帝에게 位를 찬탈당하였는데(265년), 여기에서도 司馬炎의 야망은 ‘禪讓’이라는 美名을 빌려 장식되고 있다.

魏·晉이란 실로 이러한 시대였다.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에 의하여

도덕이 깃뻛히는 이러한 시대에 산다는 고민은 정치권력과는 無緣의 존재인 서민대중보다는 정치적으로 권력자에 밀착하여 살지 않으면 안되는 士人들에게는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漢末의 士人들 사이에 싹튼 도덕과 예교에 대한 그 역설적인 반향이 이 시대의 士人들에게 보다 강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궤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편, 그 竹林七賢이라는 魏·晉시대의 名流士人의 생활행동을 기록한 宋의 劉義慶(303~444)에 의하여 쓰여진 《世說新語》任誕篇 제1조의 記事에 의하면,

陳留출신 阮籍, 譙國출신 嵇康, 河內출신 山濤 등 세 사람은 나이가 비슷했고 嵇康이 조금 적었다. 당시 이들의 모임에 같이 어울렸던 자들은 沛國출신 劉伶, 陳留출신의 阮咸, 河內출신의 向秀, 琅邪출신의 王戎 등이 있었는데 늘 竹林에 모여 마음대로 술 마시고 놀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들을 일컫어 竹林七賢이라 했다.

(陳留阮籍, 譙國嵇康, 河內山濤, 三人年皆相比, 康年少亞之。預此契者, 沛國劉伶, 陳留阮咸, 河內向秀, 琅邪王戎, 七人常集于竹林之下, 肆意酣暢, 故世謂竹林七賢。)

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竹林七賢의 본관과 최종관직, 생졸년을 《晉書》本傳의 기록에 의해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姓名	本貫	最終官職	生卒年
嵇康	譙國銍	中散大夫(正始8년경)	223~262
阮籍	陳留尉氏	步兵校尉(甘露初경)	210~263
山濤	河內懷	司徒(太康3년)	205~283
王戎	琅邪臨沂	司徒(元康3년)	234~305
向秀	河內懷	散騎常侍(咸寧3년경)	不詳
阮咸	陳留尉氏	始平太守(泰始9년경)	不詳
劉伶	沛國	建威參軍(咸寧4년경)	不詳

※ 참고 : 不詳<sup>1)</sup>

다른 세 사람의 生卒年次는 不詳이나 처음의 세 사람에 비하여 후배임에는 틀림이 없다. 결국 크게 묶어서 말한다면 일곱명 중 최연장자인 두 사람, 山濤와 阮籍은 後漢末에 출생하였고 嵇康이하 다섯명은 魏시대에 들어와서 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嵇康과 阮籍은 魏末의 景元3·4년에 이어서 사망하였으나 나머지 다섯명은 晉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생존하였다. 더욱이 그들의 출생지는 각각이지만은 생활한 장소는 魏·晉의 수도였던 洛陽(河南省)과 그 주변에 위치한 河內郡의 山陽縣 근처로 추정되며, 또 생활경력으로 말하자면 魏·晉의 정권담당자인 曹·司馬 兩氏와 밀착된 名流土人이다. 예컨대, 嵇康은 조조의 증손녀를 부인으로 삼았고, 山濤는 司馬懿와 姻戚關係에 있으며, 阮籍도 한 번 司馬昭로부터 인척이 되기를 요구받았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은 魏·晉이라고 하는 時代風氣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위의 진실하지 못한 세계에서 자신들이 내적으로 眞正해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격렬했으리라고 본다. 그

1) 湯一介 《郭象與魏晉玄學》 臺北 谷風出版社 128쪽에서 “대략 위 명제 태화 초에 태어나서 서진 무제 함녕 말에 죽었다.(約生於魏明帝太和初(約公元227年), 卒於西晉武帝咸寧末(約公元280年)” 라고 하고 있다.

렇기 때문에 그들은 名流의 士人으로서 시대에 배회하고, 시대에 안주하며, 시대에 저항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배회와 안주, 저항 속에서 그들의 깊은 사상과 행동이 생겨났던 것이며, 벗들과 함께 제휴하여 竹林으로 가서 마음대로 酒酌하는 '竹林之遊'는 실로 그 심정의 집약적 표현이었다. 여기에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竹林之遊에 가담하는 이들의 교유관계 및 사생활이다. 이러한 시점을 설정하는 것은 淸談이라고 하는 문화형태가 사람과 사람간의 私的交友生活 속에서 짜여지는 인간관계에 의하여 생겨나고, 또한 淸談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은 그 私的交友關係를 통하여 발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교유관계는 어느 시기에서부터 결성되었으며, 또 어디에서 행하여졌을까? 본 논문은 竹林七賢의 교유시기와 교유하던 장소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삼고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交遊時期

이들 사이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竹林之遊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행해졌는지는 사실 너무도 명확하지 않다. 魏 政界의 혼란상태, 특히 司馬懿와 曹爽의 정권쟁취투쟁과 거기에 종지부를 찍은 正始 10년(249년)의 쿠데타가 그들의 관계생활에 망설임을 갖게 한 큰 요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된다. 山濤와 阮籍이 그 쿠데타의 1, 2년 전에 서로 잇따라 관직을 그만둔 것도 그 一證이 된다고 본다. 山濤는 그후 잠시 河內郡 懷縣의 자택에 있으면서 世事를 잊고 자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 동안 嵇康과 교우를 맺고, 다시 嵇康을 개입시켜 阮籍과 서로 알게 되고 거기에 阮籍의 조카인 阮咸과 阮·嵇

의 후배에 해당하는 王戎을 위시하여 劉伶과 向秀 등도 가담하여 ‘七賢의 그룹’이 이루어져 竹林之遊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嵇康은 조조의 손자인 沛王 林的 딸과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正始 8·9년 경(247·8)<sup>2)</sup>부터 얼마 안되어 河内の 山陽에서 寓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근처에는 向秀와 呂安이 살고 있었고<sup>3)</sup>, 또 그다지 멀지 않은 河内の 懷에는 正始 8년(247)부터 山濤가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고 있었다.<sup>4)</sup> 山濤와 向秀는 옛부터 알고 지냈으므로<sup>5)</sup> 빨라도 247년경부터 嵇康, 向秀, 山濤 및 七賢에는 들지 않지 않은 呂安도 포함되어 우선 山陽에 교우그룹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阮籍은 正始 9년(248년), 尙書郎의 직책으로 王渾을 방문했을 때 王渾의 아들인 王戎과 알게 되었다.<sup>6)</sup> 그 당시 阮籍은 40세, 王戎은 15세에 불과하였다. 嵇康과 阮籍이 알게 된 것은 嘉平年間(249~253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sup>7)</sup> 王戎과 嵇康과는 20여년 간의 교우가 있었기에<sup>8)</sup> 阮籍과 王戎도 곧 竹林의 淸遊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阮咸과 劉伶의 경우는 史料에서 볼 수 없으나 阮咸은 阮籍의 형의 아들이었으므로 阮籍과 전후하여 가담한 것으로 생각되며, 劉伶도 좀 늦게 참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계에서는 嘉平年間(249년) 司馬懿가 정변을 일으켜 曹爽을 타도하고 실권을 장악했으나, 2년후 司馬懿는 죽고 司馬師·司馬昭 형제가 지위를 이었

2) 《嵇康集》, 景元2년(261년)에 지은 <與山巨源絕交書>에 “딸은 13세, 아들은 8세(女十三, 男兒八才)”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서 逆算.

3) 《文選卷16思舊賦序》에 “나는 嵇康, 여안과 함께 근처에 살았다(余與嵇康呂安, 居止接近)”라고 기록되어 있다.

4) 《晉書卷43山濤傳》 참고.

5) 《世說新語》 言語篇 제18조 注引《向秀別傳》에 “젊었을 때 같은 군의 산도에게 알려졌다(少爲同郡山濤所知)”라는 기록이 있다.

6) 《世說新語》 簡傲篇 제2조 注引《晉陽秋》에 “왕용이 15세때에 아버지 왕혼을 따라 관사에 있었는데 완적이 보고는 기뻐하였다.(戎年十五, 隨父渾在郎舍, 阮籍見而說焉)”라고 하고 있다. 《晉書卷43王戎傳》 참조.

7) 《世說新語》 簡傲篇 제4조 注引《晉百官名》에 의하면 嵇康이 완적을 알게 된 것은 완적이 모친상을 당할 때였다.

8) 《世說新語》 德行篇 제16조에 “왕용이 嵇康과 20년을 같이 살면서 한번도 기쁘거나 화난 기색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王戎云, 與嵇康居二十年, 未嘗見其喜慍之色)”라고 되어있다.

다. 司馬師 집정시대(251~255년)에 山濤는 관계로 복귀했다. 嵇康은 일시 山陽을 떠나 河東으로 옮겼다. 再次 山陽으로 돌아온 것은 景元元年(260년)이었다. 그 2년 후 嵇康은 呂安과 함께 처형되었다.<sup>9)</sup> 嵇康이 죽고 난 후 向秀는 官界에 出任하였다.<sup>10)</sup> 이것은 司馬昭 집정시대(255~265년)의 일로 늦어도 265년 전의 일이다. 王戎은 司馬昭의 시대에 相國掾이 되었다. 阮籍은 이미 司馬懿, 司馬師 양쪽의 從事中郎이 되어 있었으므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正始말년(248년) 전후의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劉伶도 阮咸도 거의 등용되지 않았다. 阮咸이 정계에 입문한 것은 咸寧年間(275~279년)이 되어서 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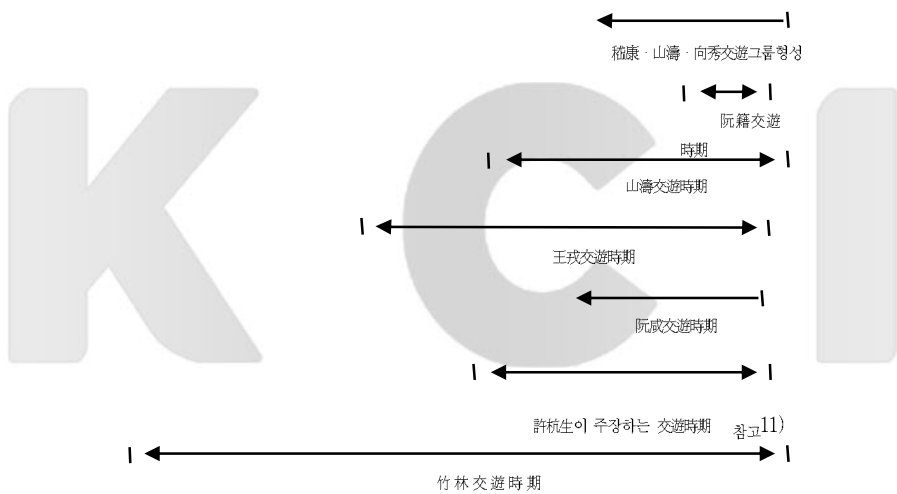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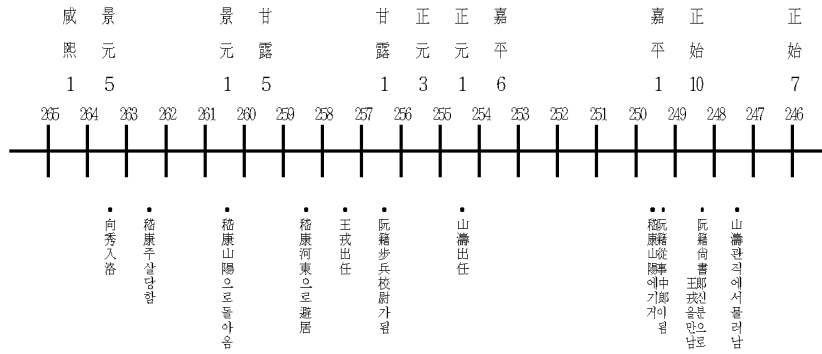
諸賢의 동정을 정리해보면, 山濤는 正元1년(254년)에 出任과 함께 山陽의 그룹에서 떠나고, 王戎도 257년에는 떠났다. 嵇康도 일시 河東으로 떠났다. 嵇康이 山陽으로 돌아온후, 262년 嵇康과 呂安의 죽음으로 竹林之遊는 완전히 끝이 났다. 向秀는 이것을 기회로 官界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司馬씨의 쿠데타 전야의 긴장된 공기 속에서 시작된 竹林之遊는 嵇康의 죽음과 山濤, 王戎 등의 官界 복귀의 움직임 속에서 점차 소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보면, 正始 8년(247년)부터 嵇康, 山濤, 向秀가 교우그룹을 먼저 형성하고, 正始 9년(248년)에 阮籍이 尙書郎의 신분으로 王戎을 본 이후부터 嘉平 初까지 阮籍이 가담하였으며, 阮咸과 王戎 등도 이때 阮籍의 뒤를 이어 가담한 것 같다. 이러한 竹林교유시기는 10여 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여러 諸賢들이 進進出出하면서 계속되어 진행되어 오다가 景元3년(262년)에 嵇康이 司馬昭에게 주살당함과 向秀의 出任으로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9) 《晉書卷49嵇康傳》 참고.

10) 《世說新語》言語篇 제18조에 “혜강이 주살당한 후 向秀는 군의 선발을 거쳐 서울 낙양으로 들어갔다. 문왕은 이에 向秀를 불러다가 ‘듣자하니 그대는 기산에 은거하려 했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 왔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向秀는 ‘소부와 허유는 건개하고 고결한 인물이지만 크게 호모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자 왕은 크게 기뻐하여 칭찬하였다.(嵇中散被誅, 向子期舉郡計入洛. 文王引進, 問曰, ‘聞君有箕山之志, 何以在此?’ 對曰, ‘巢許狷介之士, 不足多慕’ 王大咨嗟.)” 라고 되어있다.



### 3. 交遊場所

竹林七賢이 교유했던 장소가 嵇康이 살고 있었던 山陽縣 근처가 아닌가 想定할 수는 있으나 이곳이라고 할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1) 《魏晉玄學史》 陝西師範大學出版社 165쪽 참고

《藝文類聚卷64》에 인용된 東晉 郭緣生의 《述征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山陽縣의 성에서 동북으로 20리 되는 곳에 위의 중산대부 嵇康의 가옥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폐허가 되었지만, 父老들은 이곳이 嵇康의 竹林地라고들 말하고 있으며 대나무들이 지금 남아있다.(山陽縣城東北二十里, 魏中山大夫嵇康園宅, 今悉爲丘墟, 而父老猶謂嵇公竹林地, 以時有遺竹也.)

또한 《晉書卷49向秀傳》에 인용된 《思舊賦》에도

조정의 명을 받고 먼 京師(도읍)에 갔다가  
곧 바로 뒤돌아 북을 향하여  
배를 띄워 황하를 건너  
山陽의 舊居를 지났네.  
광야의 적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타고 온 가마를 城 모퉁이에 쉬게 하고  
嵇康과 呂安 두사람의 遺跡을 밟고 걸으며  
陋巷의 인기척 없는 초막을 찾았네.  
(將命適於遠京兮, 遂旋反以北徂, 濟黃河以汎舟兮, 經山陽之舊居。  
瞻曠野之蕭條兮, 息余駕乎城隅。 踐二子之遺迹兮, 歷窮巷之空廬。)

라는 기록이 있으며, 《晉書卷49嵇康傳》에도

王戎이 嵇康과 山陽에서 20년을 함께 살면서 한번도 기뻐하거나 화내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戎自言與康居山陽二十年, 未嘗見其喜愠之色。)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水經·清水篇注》에 山陽의 嵇康의 舊居에 후세 사람들이 기념하여 七賢祠를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sup>12)</sup>으로 보아

12) 「또 칠현사를 지나 동쪽으로 대나무 숲이 좌우로 늘어서 있는데, 봄·겨울로 변함없이 무성하다. 위의 보병교위 원적과 초국의 중산대부 혜강을 …… 세상 사람들이 죽림칠현이라 불렀다. 향수가 말하는 산양의 구거이며, 후세사람들이 그곳에 사당을 지었다……(……又逕七賢祠東, 左右筠篁列植, 冬夏不變貞藂, 魏步兵校尉阮籍, 中散大夫譙國嵇康, ……時人號之爲竹林七賢。 向子期所謂山陽舊居也, 後人立廟於其處……)」

竹林淸談은 嵇康의 집을 중심으로 행해진 것으로 생각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七賢의 교유장소였다고 단정할 정도의 확증은 없다. 그러므로 고증을 좋아하는 학자 중에 臺灣의 何啓民은 그의 《竹林七賢研究》에서 七賢이 竹林에서 遊하였다는 記事는 東晉(317년 이후)의 문헌에는 빈번히 발견되나 七賢 당시의 문헌에는 전혀 기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竹林之遊라고 하는 것은 東晉 시대에 이르러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라고 의문시하고 있다.

七賢은 魏·晉이라고 하는 時代風氣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으면서 주위의 '진실하지 못한' 세계와 그들이 내적으로 眞正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의 相剋이 때로는 격렬했으리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名流의 士人으로서 安逸無事한 생활을 했을 그들도 때로는 배회하고 때로는 안주하였으며, 때로는 저항하는 것을 禁하지 않았다. 그 배회와 안주, 그리고 저항 속에서 그들의 심오한 사상과 행동이 생겨난 것이며, 비록 그들의 출생지는 각각이지만 史料에 의해 추측이 가능한 河內郡의 山陽縣 근처에서 提携하여 竹林에서 마음대로 酒酌하는 竹林之遊는 진정 그 心情의 集約的 表現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竹林七賢의 교유관계가 행하여졌던 시기와 장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여기에서는 竹林淸談이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竹林七賢의 생애 중에서 차지하는 竹林시대의 역할에는 하나의 공통되는 작용이 있다. 그것은 각자가 魏·晉교체에 즈음한 이 시기에 정치상의 혼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도피하기 위하여 정계로부터의 도피를 도모했다는 사실이

다. 山濤와 王戎 그리고 向秀는 시기가 도래하면 정계진출을 하려고 하는 야심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嵇康은 竹林시대에도 정치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阮籍과 같은 任誕者들도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면서도 관직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竹林淸談의 형태는 은둔적이었으나 이 시기는 정계로부터의 도피의 시기이지 정치세계와의 연결을 거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竹林淸談의 독특한 정치세계와의 연결이 보인다. 이 그룹은 諸賢 개개의 '便宜'에 따라 오히려 스스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고 개개의 진로가 확실해짐에 따라 점차 분산되기에 이르렀다. 단 여기서 便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그룹 성립의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이지 淸談의 내용 그 자체 까지도 便宜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淸談은 본래 정치성을 갖지 않은 소극적 담론이며, 이 場에 있어서는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입장을 초월한 정신적인 끈을 맺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七賢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 두터운 우정과 신뢰가 생기게 된 것은 淸談이 가진 이러한 비정치적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치세계로부터 일시적이거나 떨어져 있는 竹林시대의 상황은 한층 순수하게 淸談을 즐기는 심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세계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재촉하게 한 사상은 老莊에 기초를 둔 方外思想이었다. 超俗의 경지를 주장하는 方外사상은 그들이 놓여있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꼭 알맞게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방외사상으로 결속된 竹林淸談은 결코 타협적인 의론은 아니었다. 淸談의 방식에는 竹林淸談처럼 정치세계로부터의 도피를 도모하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교우사교계 내에서 인물품평을 통하여 사회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경우가 있다. 何晏을 主宰者로 하여 浮華의 徒가 중심이 된 正始之音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도 淸談의 내용 자체는 후세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 높은 논리분석이었으나 거기에는 동시에 인물품평이 행해져 여기서 얻은 명성은 사대부에 있어서 정계진출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淸談의 場은

단순한 談論의 場을 초월한 정치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淸談이 인물품평과 결부되어 정치세력 형성의 일단을 책임지는 작용을 淸談의 ‘浮華性(친권력적 성향)’이라고 정의해보기로 하자. 이것과는 대조를 이루어 인물품평을 위시로 하여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배제하고 정치세계로부터의 도피를 도모하는 쪽, 이 성격을 지닌 淸談을 ‘韜晦性(때를 기다리는 은둔적 성향)’이라고 정의해보기로 하자. 같은 淸談이면서 浮華性이 적극적으로 정치세계에 활동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韜晦性은 정치세계로부터의 도피를 도모하면서 소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수용하는 방향을 가지고 保身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竹林淸談은 韜晦的 淸談의 祖型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史記》 臺北, 鼎文書局, 1979
- 《漢書》 臺北, 鼎文書局, 1981
- 《後漢書》 臺北, 鼎文書局, 1980
- 《三國志》 臺北, 鼎文書局, 1979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 《藝文類聚》 臺北, 中文出版社, 1980
- 《老子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0
- 《莊子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5
- 《水經注》 臺北, 世界書局, 1982
- 《文選》 臺北, 文律出版社, 1987
-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臺北, 世界書局, 1982
- 《全漢三國晉南北朝詩》 臺北, 藝文印書館, 1978
- 《漢魏六朝百三家集》 臺北, 文律出版社, 1979
- 劉汝霖 《漢晉學術編年》 臺北, 長安出版社, 1979
- 楊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 張起鈞,吳怡 《中國哲學史話》 臺北, 東大圖書公司, 1989
- 周紹賢 《魏晉清談述論》 臺北, 商務印書館, 1972
- 何啓民 《竹林七賢研究》 臺北, 學生書局, 1984
- 郭英德 《中國古代文人集團與文學風貌》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 魯金波 《隱逸避世的名士集團 - 竹林七賢述評》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8
- 韓格平 譯 《竹林七賢詩文全集譯註》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97
- 許杭生 《魏晉玄學史》 陝西, 陝西師範大學出版社, 1990
- 湯一介 《郭象與魏晉玄學》 臺北, 谷風出版社, 1987
- 羅宗強 《玄學與魏晉士人心態》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2
- 許杭生 《魏晉思想史》 臺北, 桂冠叢刊, 1992

#### 《中文提要》

“竹林七賢”是出現在三國末年曹魏與西晉交接時代的文士集團。其核心人物是阮籍和嵇康,此外還有山濤、向秀、劉伶、阮咸和王戎,共七位名士。“竹林七賢”名士集團的形成源於竹林名士之游,是曹魏末年特定的社會矛盾的產物。他們不肯與黑暗的當局同流合汙,崇尚自然,蔑視禮教,先後棲游山陽竹林之中,撫琴長嘯,酣歌痛飲,放浪形骸,故被稱為“竹林七賢”。

那麼,曾經一起飲酒撫琴,高談闊論的七位名士其交游場所到底在哪裏?生平各不相同的七位名士共同結伴交游的活動時期又是何時呢?透過這兩部分的探討來確認“竹林七賢”名士集團的形成與解體,並在結論部分闡明“竹林七賢”的性格做為本論文之目的。

주제어 : 죽림칠현, 교유시기, 교유장소, 청담